

결혼의 본질

성경말씀: 엡5:18-33, 엡5:31(창2:24)

복습

결혼 시리즈, 지난 번, 결혼을 위한 능력

엡5:2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21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성령 충만을 명령하는 18절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겸손의 영으로 남을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

자기의 변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주인과 종과의 관계 변화

바울의 요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내 것보다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핵심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이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다. 셋째: 결혼의 본질
결혼은 언약이다

사회학자들: 6-70년대, 이혼이 늘면서 과연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까?

8-90년대, 결혼은 계속해서 지속됨, 많은 이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한 뒤에도 또 결혼한다.

결혼은 통계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안물: 사람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하면 결혼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성경의 결혼은 언제나 언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법적인 계약이다.

말2:14-15, 네 언약의 아내, 언약의 남편

언약: covenant, 292회, testament 14회

창세기 15장 10-17, 짐승을 반으로 조각내어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 렘34:18-19

성경의 언약: 언약 당사자들, 규정(의무), 축복과 저주, 공중 앞에서의 약속

공중: 하나님, 천사들, 사탄과 마귀들, 친척과 친구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조차도 양심의 법에 따라 결혼을 언약으로 여긴다.

이 약속이 무너지는 사회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 성의 문란, 후손을 보기 위해 결혼 하고 성 관계는 밖의 여자들과 함.

성경: 결혼이 부부 관계를 지키겠다는 언약으로 보는 반면 현대인들은 선택의 자유로 본다.

성경의 사랑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의 말: “사랑하면 되지 결혼 서약서 종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오히려 일만 복잡해지지 않아?” 결혼 서약서 종이: 이게 현대인들의 사랑 개념

“나는 당신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종잇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망치지요”
사실 감정에는 종잇장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주는 것이다(엡5:25).

얼마나 희생하고자 하느냐? 얼마나 내 자유와 시간, 감정, 자원을 상대방을 위해 투자하려는가?

그러므로 결혼 서약은 사랑의 시금석이다. ★★★

“사랑하지만 결혼해서 망치지는 말자.” “내 모든 옵션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

“종잇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로맨틱한 감정이 있어야만 하지요.”

결혼 준비 즉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문제: 로맨스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사라지므로 결혼과 로맨스는 일치될 수 없다.

현대인의 사랑(love) 개념: 느낌(감정), 내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상대에게서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은 성경의 사랑(love)과 완전히 다르다: 언약,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대에게 주려고 한다.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기 위해”

결혼 서약: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나를 약속하는 것이다.

“나 정동수는 그대 오해미를 아내로 맞아 이 날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서약합니다.”

결혼 약속: 미래의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소비자 관계와 언약 관계

소비자 관계: 고대로부터 존재함

공급자가 가장 싼 가격에 필요를 맞추어 주는 한 지속된다.

다른 공급자가 더 싼 가격에 맞추어 주면 공급처를 그냥 바꾸어 버린다.

관계보다 개인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

언약 관계: 서로를 구속하는 힘이 있는 관계

관계가 개인의 필요보다 중요하다.

부모와 아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매주 24시간을 돌봐주어야 한다.

아기가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아이를 돌보면서 감정적으로 얻는 것은 별로 없다. 힘들다.

그렇다고 양육을 포기하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해야 할 때에도 부모가 준 것보다 적은 만큼만 준다.

심지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성경이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부모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이다. ★★★

요즘 아이들이 자라서 품을 떠난 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

이유: 아이들은 언약 관계로 대해 왔으나 결혼은 소비자 관계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현대 사람들은 결혼도 언약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 관계에 근거해야 주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만 관계를 맺는다.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 더 많은 인내와 희생과 사랑을 요구하면 - 관계를 끊고 만다.

즉 결혼도 사랑도 상품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어떤가?

결혼은 수직적 언약과 수평적 언약 관계

성경은 수평과 수직 언약 관계를 보여 준다.

수평 관계: 친구 사이(삼상 18:3; 20:16), 민족과 민족 사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 개인(창17:2), 가족과 민족(출19:5).

여러 면에서 결혼은 특별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언약적인 관계이다.

엡5:31, 창2:22-25: 인류 최초의 결혼식

연합하여(cleave), 떨어지지 않게 풀로 붙인다.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둘을 연합시키는 것

왜 결혼이 가장 언약적인 관계인가? 수평과 수직을 다 가지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동시에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혼 서약: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결혼이라는 거룩한 연합 속에서 평생토록 서로를 사랑하겠는가?”

둘 다 “네” 라고 말한다. 이때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뒤에 돌아서서 서로에게 약속한다.

즉 먼저 수직으로 약속한 뒤에 수평으로 약속한다.

상대방이 하나님과 가족들과 교회와 국가 앞에서 서서 신실함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듣는다.

이 기초 위에서 서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오혜미는 그대 정동수를 남편으로 맞아 이 날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서약합니다.”

결혼의 좋은 점

그냥 데이트와 동거를 하면 상대를 유혹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매일 증명해야 한다. 항상 즐겁고 만족을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이러려면 소비자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프로모션과 마케팅

그러나 법적인 결혼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 공간을 준다.

약점이 있지만 더 이상 외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채 보여 줄 수 있다.
구약 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소비자 관계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다(마19:3-9).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없다. 창2:24를 인용하시면서 결혼은 언약이다.”
아무 이유나 대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약속의 힘

이혼은 참으로 힘든 경험이다. 그런데 결혼 서약은 우리를 강하게 해서 이혼하지 못하게 만든다.
서약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다리에 금이 가 있다. 대개는 잘 안 보인다.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금이 보인다.
무거운 짐이 금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흠이 보인다. 상대방을 직시하게 된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쇠가 쇠를, 친구가 친구를(잠27:17)

결혼은 언약제, 서로의 튀어나온 점을 갈아내는 장, 결혼을 낭만으로 생각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결혼 서약은 사람의 연약한 감정인 사랑의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하고 깊게 뿌리박히게
해 준다.

서약의 결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넓게 깊게
만들 수 있다. 그 이유: 그래도 상대방이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

나와 아내의 이야기 ★★★ 변기 이야기

단순한 로맨스와 사랑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서약은 결혼을 위한 사람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안정된 결혼이 불가능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의 말:

“자기 아내와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25년 뒤에 아내가 어떤 사람일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을까?

2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 아내가 어찌 알 수 있을까?

지난 25년 동안 내 아내는 5명의 다른 남자와 살았다. 그런데 그 5명은 다 나였다.

그런데 나는 항상 서약을 기억하였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यो.”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엡5:28 남편들도 마땅히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25절에 이미 사랑하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령이다.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으므로 바울이 주문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다.

그 날 기분이나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아무하고나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며 결혼에서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누구와 결혼해도 언젠가는 싫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열렬하게 타오르는 감정과 기쁨은 계속 지속될 수 없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리가 없다.”는 말을 믿지 말라.

누구나 결혼하면 권태기를 맞는다. 그럴 때마다 결혼은 하나님께 서약한 언약이요, 미래의 사랑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마5:43-48), 그러면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엡5:28)

부드럽게,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행동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권태기가 지나가고 감정 면에서도 좀 더 지속적이 될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아도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

흥정 게임

너무나 많은 청춘남녀들이 결혼 흥정 게임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 내가 얼마를 넣고 상대방이 얼마를 넣어서 나중에 그 합이 처음보다 커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수입이 줄면 지출을 깎듯이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 내 사랑도 줄이기 시작한다.

“아내가 이전처럼 안 해요? 그러니 나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흥정이 주가 되는 장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이 줄어들 때 사랑의 행동 역시 줄어들면 악순환의 궤도로 진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부셨음을 상기시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군중들을 보고는 “너희가 참으로 매력적이므로 내가 죽는다”고 하셨을까? ★★★

늘 배반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다.

결론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개적인 서약이다.

부부는 생산자/소비자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자이다.

어려울 때마다 결혼 서약을 상기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